

## C-5. Aesthetic anterior reconstruction using a combined periodontal/restorative approach

조상호<sup>1</sup>, 한응택<sup>2</sup>, 정철웅<sup>2</sup>

광주 미르치과 병원<sup>1</sup>,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sup>2</sup>

### 연구 배경

과거 무치악 치조제에 결손부위를 가진 환자에 대한 치료는 결손된 조직을 가공치나 치은과 유사한 acrylic flange를 통해 대체하는 보철적 접근이었다. 이러한 보철물이 기술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realism이 부족하고 총체적 안모에서 봤을 때 비심미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치주성형수술의 발전을 통해 결손된 조직의 너비와 높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심미적인 보철물의 제작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발표할 증례는 결손된 치조제를 가진 환자에서의 치조용선 재건술을 통한 수복에 관한 것이다.

### 연구방법 및 재료

수술할 부위에 위치할 최종 보철물의 형태에 맞는 용선을 재건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provisional restoration을 제작한다. 이러한 임시 보철물은 회복해야할 조직의 양, 연조직 이식과 경조직 이식의 혼합 여부, 이식 공여부에 대한 고려, 수술 횟수에 대한 결정 등을 가능하게 한다. 치아의 형태와 치축, 치간공극, emergence profile 등을 임시보철물 상에서 평가하여 현존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가능성을 미리 타진한다면 불필요한 재수술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치조용선을 재건하기 위한 방법은 수평적 및 수직적 결손의 양과 형태에 따라 1) roll technique, 2) pouch technique, 3) interpositional graft technique, 4) onlay graft technique, 5) combination onlay-interpositional graft technique 등의 수술방법을 선택하여 시행한다.

또한 결손의 양이 클 경우 다량의 연조직 이식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골 이식재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결론

치조제 결손에 의한 비심미적 수복으로 고통 받던 환자들에게 치조제 용선 재건술은 보다 심미적인 보철이 가능하도록 해주었다. 재건을 위한 술식의 선택은 현존하는 문제를 보철전 그리고 수술전 정확한 평가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이번 증례를 통해 수술전 정확한 진단과 세심한 수술이 보다 심미적인 수복을 위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